

層級받침과一段씩의身石괴임을刻出하였다. 基壇面石이나塔身石에는 그밖의裝飾이 없고轉角의反轉度는甚하지 않으나물매나침하에약간의弛緩感이 있다. 相輪은比較的狀態가 좋으며露盤,覆鉢,仰花,寶輪三個,寶蓋와鐵製擦柱가 남아 있고寶輪의 받침돌一個와水漂,寶珠는 缺失되어 있다.

基壇部 各石은 部分的으로 破損되고 下基壇이 埋沒되어 있어 若干의 違和感을 느끼나 各層의 垂直 水平 遞減率은 新羅式 一般形 三層石塔의 테두리 안에 들 것이다. 地上에서 三층 蓋石까지의 現在高는 三三四cm, 擦柱까지는 四六七cm 復原推定高는 約5m 下基壇의 構造는 아직 불수 없으나 上記한 諸部分의 狀態를 勘察하건대 統一新羅末期의 建造로 推定할 수 있겠다.

現狀實測表 (單位 cm)

| 相輪                | 層位                       |                |                | 各部                |                | 身石           | 蓋        | 石            |
|-------------------|--------------------------|----------------|----------------|-------------------|----------------|--------------|----------|--------------|
|                   | 上基壇                      | 初層             | 二層             | 三層                | 甲石             |              |          |              |
| 높이 一三三(擦柱包含·各部省略) | 邊 一六四<br>두께 二二<br>침하 八·五 |                |                |                   | 上 一四六<br>下 一五三 | 邊 三〇八        |          |              |
|                   | 高邊 一三八<br>隅柱 八·五         |                |                |                   |                |              |          |              |
|                   |                          | 六九<br>五九<br>一一 | 五八<br>二六<br>一一 | 五四<br>二二<br>五     |                | 高 隅柱<br>邊 두께 | 층압<br>받침 | 침하<br>괴임     |
|                   |                          | 二六<br>三七<br>七  | 一〇<br>三三<br>五右 | 九<br>九<br>三五右     |                |              | 同        | 六            |
|                   |                          | 水平三<br>垂直三     | 同              | 同                 |                |              |          | 高邊 三三五<br>三三 |
|                   |                          | 六·五<br>邊六三     | 六·五<br>邊六三     | 六<br>高邊 三三五<br>三三 |                |              |          |              |

春宮里 兩塔內 發見遺物과 補修概要

金 禧 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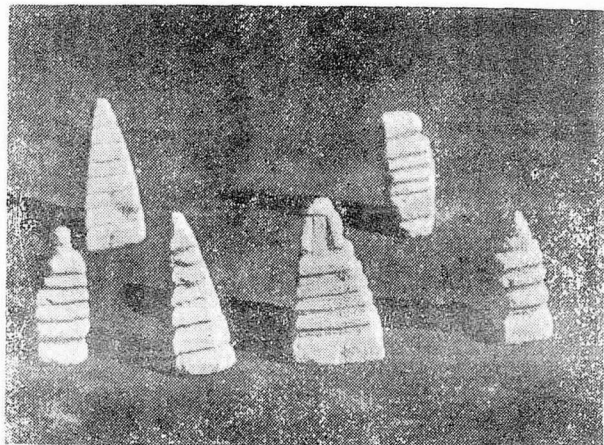
서울에서 過히 멀지 않은 廣州郡 春宮里땅에 아름다운 雙塔이 서 있어 일찍기 日人學者들에 依하여서도 많은 注目이 되어 왔던 바 一九六五, 一, 一三부터 六六, 一, 七에 古建社에 依하여 補修工事가 있었는 데 筆者는 이 兩塔의 基壇部에 對하여는 疑心點을 가지고 있어서 一九六二年과 六三年의 두차례에 걸쳐 調査한 因緣도 있고하여 今般機會에 工事現場에 參與하게 되었다. 이 塔들은 補修前에 基壇部塔材에 缺失이 많아 遺物의 發見에 對하여는 많은 期待를 걸 수 없었던 바 多幸히 塔周圍地下에서 塔材數枚가 發見되었다①.

一、三層石塔

傾斜가 甚하였고 上基面石 缺失部分으로부터 內部가 들여다 보였다. 解體時 第一塔身石 中央에 圓形二段舍利孔(外圓徑三一·五cm 深一一·〇cm 內圓孔徑一一·〇cm 深五·〇cm)이 있었고 그 속 土砂中에서 銀器破片과 橢圓形의 金銅製小盒(幅三·〇cm 高〇·九cm 長四·〇cm) 및 舍利數粒이 發見되었다. 基壇部解體時 地面下에 다시 下層基壇이 있어 二層基壇임을 알게 되었고 面石各面에 三區씩 眼象이 鮮明하게 刻出되어 있어서 좋은 資料를 提供하여 주었다.

下層基壇中央部 龕속에서 蠟石製小塔 二九基와 銅製如來立像(足部, 手部缺 現高七cm) 一軀, 銅製小人物坐像(手部缺 現高二·七cm) 一軀, 蠟石製佛像(頭部, 手部缺 現高九·五cm) 一軀, 青銅三花形蓋(徑七·五cm) 一이 發見되었는 바 特別히 小塔은 塔外地臺石 四圍에 三一四基씩 흠어져 있던 것도 있었으니 혹시 內部攪亂時의 所致가 아니었던가도 推測되었다. 이들 小塔은 各各 其樣式이 相異하였으니 이들을 特徵에 따라 分類하면

- ① 層數別 八層塔……一基, 七層塔……五基, 六層塔……三基, 五層塔……



一二基、四層塔……  
一基、三層塔……七  
基

② 層만 表示한것  
三層塔……一基

③ 基壇部形態細  
長한것……五層塔一  
基、高大한것……六  
層塔一基、七層塔  
一基 五層塔一基

④ 相輪部形態水  
烟形式……四層塔一基  
이 小塔들은 대체  
로 底面은 손질이 덜  
갔고、平面을 이루  
지 못하였는데 모양  
또한 不正確四角形  
이고 未完成品으로

生覺되는 것이 數基 있었으며 底面에는 孔이 없었다。(層數도 塔婆에 있어서 偶數가 있을 것인지 疑問이 되나 觀察한 대로 記錄하여둔다)(實測値는 別表) 또 이 塔工에서 새로 넣은 石材는 다음과 같다.

地臺石：南面に 長大石一枚、東面に 長大石一枚와 작은을一枚計三枚  
下基面石：東面に 一石、南東隅에 一石 南面に 一石計三枚  
上基面石：南面に 一枚都合七枚

新石材의 隅柱刻出이 얇고 眼象製作의 技術도 拙劣하여 滿足스럽지 못하였다.

二、五層石塔

補修前에 西、南、北面 各一枚씩 面石이 缺失되어 밖에서 擦柱石이 보였던 바 第一塔身以上の 重量을 지탱해 온 것은 擦柱石의 힘이 컸다

고 본다. 이 塔 또한 一層基壇임이 ② 밝혀졌다.  
A、舍利孔은 四層屋蓋石內面의 中央部(二枚中北使)에 舍利孔이(上部 ×一三·五底面一) 底面에 들어감에 따라 차츰 좁아 지게 마련되었으나 ×八·五深二〇cm) 內部에 아무것도 없었다.

B、遺物 塔內에서는 遺物을 發見할 수 없었고 다만 擦柱石東面 一五 cm 地下에서 青銅器具蓋(一部破損經 五·五cm程度)이 發見되었을 뿐이다. 塔南面約 七五cm 地下에서 蠟石製水烟(高二〇·五cm 圓孔徑三·五cm 上面七×三·五cm)과 蓮花文圓瓦當片、花文平瓦當片 및 相輪石五片이 出土되었는데 이는 대체로 圓形을 이룰 수 있게 되었으나 其中 二片은 若干 他보다 높 은 듯하였다.(이외에도 三層塔屋蓋石 추녀끝의 折斷된 部分이 一片 發見되었나)

C、組立 五丁이나 된다는 第一塔身石을 다루기가 가장 困難하였고 上層基壇面石二枚와 甲石一枚를 地中에서 發見하고 下基南面に 新石四枚와 上基東面缺失面石一枚를 附近 大恩寺庭에서 石材를 求하여 다듬어 서 맞추었으니 計六四石으로 塔이 構成되었다.(新石材五枚包含) 그리 고 工事中 不注意로 因하여 三層屋蓋石이 地下에 落下되면서 一層屋 蓋石에 부딪쳐 兩石이 모두 처마와 屋蓋石받침 一部가 破損된 遺憾된 일이었다.

三、兩塔의 時代問題

關野貞博士는 新羅塔으로 보았고 今西龍 博士는 처음에 羅統一期作으로 보다가 나중에 麗代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③. 解放後 우리 나라 學界에서는 麗塔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今般 出土된 遺物——佛像、眼象、陶片等——의 手法으로 보아 亦是 麗塔이라고 보는 것이 妥當하리라고 믿어졌다. 寺名等의 記錄이 煙滅된 오늘날 發見遺物等이 時代考證에 있어서 가장 有力한 資料의 하나가 될 것이다.

註

- ① 本誌 七卷 一號 뉴스欄 參照
- ② 문교부국보도록 제五집 석탑편 六八頁參照
- ③ 舊朝鮮總督府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六〇四頁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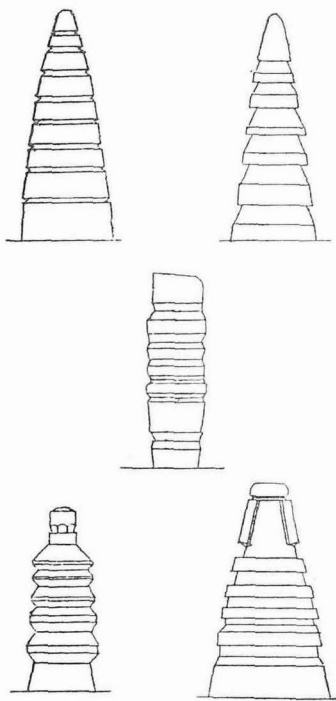
附 表 小塔實測值

| 層數別 | 基數 | 高   | 底面  | 備   | 考 |
|-----|----|---|---|---|---|
| 八層塔 | 一基 | 六·七 cm                                    | 二 cm × 二·七 cm   | 底面이 平面 못하고 가운데가 若干 露出한 相輪은 四角錐  |   |
| 七層塔 | 五  | ① 七·三<br>② 七·三<br>③ 六·三<br>④ 七·三<br>⑤ 五·三 | 二·八 × 一·二<br>二·八 × 二<br>二 × 一·七<br>二 × 三·三<br>二·三 × 一·八 | 底面에 아무런 加工이 없고 自然石 그대로의 凸凹<br>底面은 半加工, 傾斜져서 잘 서지 못함 層級の 區分도 不分明<br>底面은  대체로 矩形, 一部는 缺한 듯 이 보임 相輪部는 四角錐<br>底面은 不正確 四角形, 基壇部 加工이 疎忽하며 自然石 그대로임, 相輪部 半破<br>底面은 梯形에 가깝고 中央部가 凹, 基壇部 下寬上促, 相輪部는 四角錐<br>底面은 平平치 못하고 一隅破損, 相輪部 半破, 屋蓋石 露出이 完全, 比較的 整齊함 |   |
| 六層塔 | 三  | ① 五·九<br>② 六·六<br>③ 六                     | 一·四 × 二<br>二·五 × 一·八<br>二·六 × 一·五                       | 底面若干 傾斜, 基壇部는 相輪部에 比하여 越等하게 크고, 相輪部는 露盤만 남음<br>底面은 平平하지 못하고 서기 困難함 加工이 疎忽하며 相輪部는 圓形인 듯하나 半破 發掘時 一面破損<br>塔身과 基壇의 區別이 뚜렷한, 底面 加工이 粗雜, 相輪部와 五層屋蓋石은 接진듯   |   |
| 五層塔 | 二  | ① 五·八<br>② 六·五<br>③ 八·八<br>④ 五·九<br>⑤ 四·九 | 二·八 × 八<br>二·四 × 三·二<br>一·二 × 三<br>一·七 × 二·三<br>一·五 × 八 | 屋蓋石이 뚜렷하게 두 겹고 一(二)層間에 半孔, 塔의 半面은 缺음<br>基壇과 塔身의 區別이 分明함, 底面은 梯形에 가깝고 一(三)層의 一面破損<br>二(三)層屋蓋石이 유난히 두꺼울, 五層屋蓋石은 四面에 露出, 相輪部 缺음  |   |

第七卷 第三號 通卷六十八號

| 三層塔   |           |           |           |           |           |           |           |           |           |           |           |
|---|-----------|-----------|-----------|-----------|-----------|-----------|-----------|-----------|-----------|-----------|-----------|
| 七   |           |           |           |           |           |           |           |           |           |           |           |
| ① 五·八   | ② 四·七     | ③ 五·八     | ④ 五·三     | ⑤ 四·八     | ⑥ 四·五     | ⑦ 六·一     | ⑧ 九·〇     | ⑨ 四·一     | ⑩ 三·五     | ⑪ 五·二     | ⑫ 五·七     |
| 一·八 × 二   | 一·八 × 二·二 | 二·八 × 一·八 | 一·六 × 一·七 | 一·七 × 二·四 | 一·七 × 一·五 | 二·六 × 一·九 | 三·〇 × 二·八 | 八·〇 × 一·六 | 一·〇 × 二·〇 | 一·八 × 一·五 | 三·二 × 二·四 |
| 底面은 凸凹, 四層까지 露이 있고 相輪部는 유난히 크며 四角錐를 이룸<br>底面은 比較的 平平한, 屋蓋石 露出이 若干 보임<br>底面은 平平하지 못하고 矩形을 이루지도 못함, 五層屋蓋石 上에는 一段 相輪部는 缺음(半破)<br>底面은 比較的 平平하고 正四角形에 가까울, 露盤 上에 寶珠(半破)를 올린 듯이 보임<br>底面 平平치 못하고 대강 矩形임, 피라미트型으로 보이며 相輪部는 半破<br>底面은 矩形에 가깝고 基壇部 一面에 露이 있고 相輪部는 半破<br>底面은 〇形, 細長하며 塔身은 구부러지고 相輪部 高峻함, 彫法이 拙함<br>二層塔身이 유난히 크고, 相輪部가 塔身에 比하여 過大함, 栢栗寺 附近 發見 土塔과 恰似<br>屋蓋는 露出을 마려하고 屋蓋와 塔身과의 區別이 뚜렷함, 相輪部는 半破<br>底面 一邊이 불갈이(二) 생김, 三層 屋蓋石에 露出을 마려함 相輪部를 올리고 隅陳이 뚜렷함<br>基壇은 유난히 높으며(全高의 五分의 三) 塔身은 그 위에 缺힌 듯함<br>塔身의 半面만 있고 一, 二層間에 折斷됨 三層屋蓋石의 露出은  뚜렷하고 相輪部는 缺음<br>底面은 平行 四邊形에 가깝고 屋蓋는 缺은 것이 特色이다. 露盤 위에 寶珠를 缺인 듯한,  가장 特色 있는 塔임<br>層數가  뚜렷함 水烟形式을  마려함 |           |           |           |           |           |           |           |           |           |           |           |

考宮里三層石塔內發見小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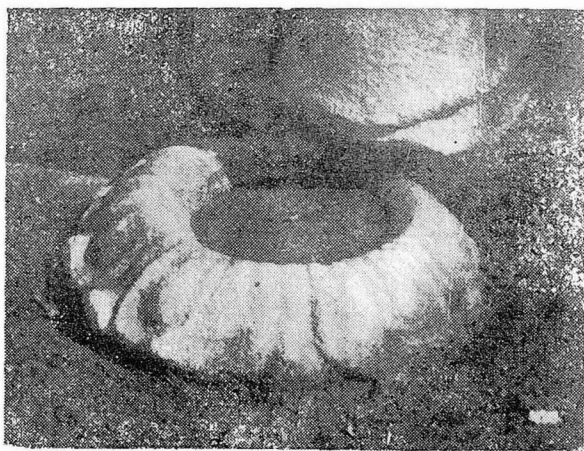


資  
料

物野發見 半跏思惟像足座

尹 容 鎮

昨年十一月二十六日新羅五岳調査中發見된奉化物野面の石造半跏思惟像(考古美術六卷十二號參照)은今年一月八日慶北大學校博物館에移置되었다. 이移置作業中半伽像에서南으로二〇〇m地點의조그마한水路에서蓮花文이있는圓形石造物을發見했다. 現地住民에依하면이石物은바로半伽像앞에서數年前보의다리로使用하고자 옮겨왔다한다. 勿論半伽像과같이博物館에 옮겨져 있다. 現地人의證言과半伽石像과의比較에서이蓮花臺石이思惟像의足座임에 틀림없으리라 생각되어 그大綱을紹介하여 둔다. 平面圖에서 보면蓮花座의外緣



서 보면 앞쪽의蓮瓣이 크면서 높고 뒷쪽으로는 크기가 작아진다. 自然 홈의 깊이도相對的으로 앞쪽이 깊고 뒷쪽이 얇다. 이 홈에다子房部 足部를別石으로插入彫出시켰으리라 본다. 造成構造上으로遠近法을使用 더效果를 올렸다고 보겠다.  
子房이 있을接足部の 크기와足座의 크기가垂脚의規格과 比較해서外見上 알맞다는것 그리고佛臺石에垂脚을彫出시킨데 있어서足部만을別石으로插入시킨痕跡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것도 발목部分의佛臺座에다半圓에 가까운 홈을 파서蓮花足座의後側圓形의插入을 알맞게 하였다는點 등을 들어서 이石物을半跏思惟像足座라 생각하였다. 이더한足座例는德壽宮金銅彌勒菩薩半伽像의足座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은短徑七〇cm長徑七六cm로서 옆으로 약간 벌어진圓形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발바닥이 닿는子房部分에는 길이三六cm幅이三四cm의 둥근 홈이 파져 있다. 이 홈들레에는規格이各各 다른七個의蓮瓣이 새겨져 있고前面이 크며 뒷쪽으로 돌아가면서 차츰 작아진다. 발바닥이 닿는子房部分의圓中心點은蓮花足座外緣의中心點보다 뒤로가 있다. 前後斷面圖에